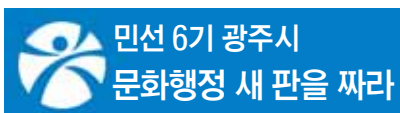


‘개방형 문화 전문 관장’ 이번엔 영입하자



④ 광주문예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지만 1000석 이상 공연장은 딱 한 곳 뿐이다. 지난 1992년에 문을 연 광주문화예술회관이다.

광주 공연예술의 핵심 공간인 문예회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을 이끌어갈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광주문예회관은 4급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문화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지만 광주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답변 내놓았을 뿐이다.

대전 예술의 전당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형 공연장은 문화 전문가들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추세다. 대구문예회관은 1996년부터 관장직을 개방형으로 공모했고, 1988년 개관한 부산문화회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관장직을 개방형으로 전환, 25년만에 민간 전문가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 광주문예회관을 거쳐간 관장은 현재 관장을 포함 모두 18명이다. 이중 가장 오래 재직하는 사람은 2년 8개월이었으며 단 7개월만 근무한 사람도 있었다. 1년 미만 재직자도 7명에 달한다. 특히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인사들이 관장으로 낙점되면서 ‘큰 사고 없이 조용히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7개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연 기획 등에 있어 제 역할을 찾기 어려웠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공무원 특유의 행정적 틀로 문화 예술을 재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방형 관장제와 관련,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사권과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결권이 없어 ‘무늬만 관장’인 경우가 있으며 대구는 내부 문제로 몇 번 간 다시



지역 공연예술의 핵심 공간인 광주문예회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공무원 수장 전문성 떨어져 제 역할 못해

오디션 강화로 시립예술단체 체질 개선 필요

공무원이 관장을 맡는 일도 있었다. 관장 뿐 아니라 직원들 역시 문화 전문가 채용 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공무원 순환 보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25년 가까이 된 문예회관 리모델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회관측이 용역을 진행한 결과 리모델링 비용은 25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체질 개선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광주시가 운영하는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무용단 등 모두 7개 단체로 29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129억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00억원이다.

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들이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직접적으로 만

나는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 횟수와 관람객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1년 6개 단체 공연 횟수는 56회 관람객수는 4만3100명이었던 데 반해 2012년에는 47개 공연에 3만6700명이 관람했다. 지난해에도 48회 공연에 3만1000명이 관람하는 데 그쳤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정기 공연 취소, 오디션과 상임지휘자를 둘러싼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시립예술단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다행히 올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합창단과 교향악단 지휘자가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마친 만큼 시립예술단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립예술단 정기평정(오디션 제도)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정기 평정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해 11월 T/F팀 구성에 합의한 후 지금까지 지지 부진한 상태다. 회관측은 조만간 예술감

독, 전문가, 시립예술단 노조 등이 참여하는 1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하고 평정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기 평정과 관련, 지역 문화계의 요구는 ‘공정한 톨을 전제로 한 엄격한 오디션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오디션 제도는 단원들과 예술단 체질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새롭게 집행부를 꾸린 시립예술단 노조 역시 조합원들의 이해 관계 뿐 아니라 시립예술단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광주시의 과감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현재 예술단의 정원은 426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96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연 때마다 객원 단원을 쓰는 형편이다. 또 7개 예술단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연예산도 17억원에 불과해 양질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타 지역 예술단체에 비해 열악하다.

지역 음악계 인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의 투자와 함께 무엇보다 엄격한 오디션 제도를 통해 단원들의 기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29일까지 신인작가전

창작하고 이세현씨 ‘돌 시리즈’ 120여점

소비하고 3만원 이상 기부편 작품 기증

사용된다 모금액 전액 무료급식소 기부

‘작품 1점이 3만원?’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회 신인작가 기획전 두 번째 전시인 사진작가 이세현씨의 ‘경계’.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돌 사세요’ 시리즈 소품(18x18cm) 120점으로 갤러리 한쪽 벽면을 채운다.

작가는 특히 한쪽에 마련된 모금함에 3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관람객들에게 원하는 작품 1점을 기증한다. 또 모금된 금액을 무료 급식소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3만원 이상에 판매되는 ‘돌 사세요’ 시리즈는 허공에 던져진 돌과 흙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다. 120점 모두 다른 작품으로 허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찰나’가 인상적이다.

전시를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이씨는 그동안 작가들은 항상 작품을 보여주지만 하고 관람객은 단순히 작품을 보고 지나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사는 등 갤러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다.

또 전시공간이 작가의 사유세계와 관람객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인식하면서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를 생성하는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부’가 관람객이 만드는 작품의 일부다.

이씨는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 관객에 의해 ‘소비’되고, 여기서 생성된 자본은 누군가를 위해 ‘사용’(기부)된다”며 “그 누군가는 우리 주변을 이루는 ‘사람’이고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동신대를 졸업한 이씨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그동안 서울과 광주에서 다섯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383-01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돌 시리즈’

가수 이동원·시인 이원규 토크쇼

담양 대담미술관, 내일 4주년 기념 행사

2010년 개관한 대담미술관이 25일 오후 7시 미술관 교육관 2층에서 ‘시가 있는 노래, 노래가 있는 시’를 주제로 개관 4주년 기념 행사 및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서정적인 시를 자신의 노래로 담아 감동을 주는 ‘음률시인’ 가수 이동원씨와 지리산에 살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행복전도사’ 시인 이원규씨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가수와 시인 두 사람은 소박하고 순수한 선율과 시어,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과 치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침체된 현재의 상황과 현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우울함, 불안감을 음악과 시를 통해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자는 취지다.

입장료는 1만원(다과 제공)으로 15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수 이동원

이원규 시인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 예선 점 광주 학생연극제 개최

29일까지 동산아트홀

제18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광주시 예선 전 및 제25회 광주 학생연극제가 오는 29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3일 오후 7시 성덕고 학생들의 ‘방과 후 엘리스’(지도교사 고영석)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연에 들어갔다.

24일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

룬 전남여상 학생들의 ‘너를 모를 리가 있겠니’(조주영)가 무대에 오르고, 25일에는 조선여고 학생들이 자살한 여섯 구의 여자 시체가 각자의 사연과 푸념을 털어놓는 ‘아름다운 사인’(한정숙)을 공연한다.

장덕고 학생들은 왕따를 당한 여학생의 죽음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이소현)를 26일 무대에 올리고, 동신여고 학생들은 27

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로도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박정하)를 공연한다.

28일에는 살레시오고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탈의 소리’(최선훈)를, 29일에는 전남여고 학생들이 ‘너를 모를 리가 있겠니’(구순식)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창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